



12·19 재·보선 현장을 가다

<3> 해남군수

현장과 시각

국악계의 고질병?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국악계가 원래 그런 곳이라던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지 모르겠다. 국악계 전체가 매도당하는 건 아닌지.”

최근 불거진 광주시립 국악관현악단 채용과 관련한 의혹을 둘러싼 두 가지 반응이다.

첫번째는 국악계 바깥쪽 사람들의 목소리. 국악인들이 들으면 서운할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 “새삼스럽지 않다”는 반응들이었다. 두번째는 국악계 사람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다.

이번 사건은 광주시청 등 인터넷 사이트에 “시립국악관현악단에 들어가려면 1~2천만원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면서 시작됐다.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단장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글 게시자를 찾아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했고, 이후 동생들 시켜 글을 올린 혐의도 불잡힌 현직 단원이 ‘금품수수설’을 주장, 수사가 확대됐다.

현재 단장은 “재위촉을 막기 위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이들이 음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한쪽은 “금품 수수는 사실이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은 12일 문제를 제기한 단원 등 모두 3명의 단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 같은날 관리감독 기관으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광주문화재단은 경찰서장을 찾아가 “조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국악관현악단은 물론이고 시립단체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깊어지는데다 역시 12월말로 임기 만료 예정인 관현악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재위촉 문제까지 미뤄지고 있어 자칫 운영 공백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진실’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국악계의 고질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채용 대가로 건넨 돈 수표·통장 사본이 있다더라” “관현악단 바깥쪽에 있는 특정한 인연이 있다더라” 등 온갖 설이 난무하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평가가 들려온다. 또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진실’로 굳어져 확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인터넷에도 국악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굵지 않다. 최근 지역 출신 국악이 대회에서 돈을 챙긴 혐의로 인간문화재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국악관련 단체의 책임자 임명을 둘러싸고는 늘상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연례행사’라며 비난하기도 한다.

이번 수사가 명예훼손, 금품 수수 여부 쪽으로 마무리 되더라도 국악관현악단, 나아가 국악계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필요한 건 국악계의 빠른 자정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악의 분할’로서 광주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mekim@kwangju.co.kr

“재·보선 악순환 끊고 깨끗한 군수 뽑자”

선거법 위반과 수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희현 해남군수가 지난 10월 초 사직하면서 보궐선거 대상에 포함됐다. 2000년 6월 도의원 보궐선거를 시발로 군수, 도의원, 국회의원, 다시 군수 보선으로 이어지는 ‘5회 연속 재·보선 악순환’에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열증이 진하다. ‘해남의 대표 축제는 선거’라는 자조섞인 농담이 오갈 정도다. 한편에선 이번 만큼은 깨끗한 군정을 펼칠 자질과 능력을 갖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면적과 주민수에서 전남 군지역 가운데 최하를 자랑하지만 해남읍의 공동화와 상권 침체, 인구 및 농업 소득 감소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J프로젝트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화원관광단지에 기대를 걸면서 이들 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군정의 새 수장을 고대하고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입지자들이 무려 10여명에 달했으나 각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무소속 후보 세 명으로 압축됐다. 경력으로 보면 두 명의 행정가와 정치인의 대결이다. 세 후보는 그동안 구축해온 조직기반을 바탕으로 한치의 양보없는



<김충식 후보>



<정두채 후보>



<이석재 후보>

세 후보 탄탄한 조직력 바탕 박빙 승부

김충식 “주민참여형 재정운영 확대”

정두채 “경영마인드·행정경험 겸비”

이석재 “사회 복지·문화 관광 활성화”

박빙의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충식(57) 후보는 해남군에서 총무·재무과장, 기획예산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두 달 전 명예 퇴직한 전문행정가. 재직 중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해남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 후보는 변화(Change)·도전(Challenge)·정렬

(Clean) 등 3C운동을 지역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남읍을 포함한 내륙권의 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해 ‘남도문화테마파크’를 조성, 관광활성화와 지역내 불균형 해소에도 힘을 쏟을 요량이다. 김 후보는 “오랫동안 혼란을 겪어 온 군정을 수습하고 비리의 사슬을 끊기 위해 주민참여형 재정운영을 확대하겠다”

■해남군수 후보

정당	이름	나이	현직	학력	주요경력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
신당	김충식	57	정당인	광주대 행정학과	해남군 기획예산실장	11억 5천만원	군필	3천 562만원	없음
민주당	정두채	68	농업	서울대 상학과	광주 남구청장	1억 8천만원	군필	114만원	없음
무소속	이석재	61	통역·역사학 고문	전남대 법학과	전남도의회 부의장	8천446만원	소집면제	2천 502만원	5건

*선관위 신고 기준

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아시아자동차 부회장과 민선 초대 광주 남구청장을 역임한 민주당 정두채(68) 후보는 “경영마인드와 행정경험을 겸비한 만큼 양자를 접목시켜 경제활성화와 행정혁신부터 이루겠다”는 각오다. 인물론을 앞세운 그의 공약은 ‘7·7행운의 약속’으로 요약된다. 군정의 기본방향은 화합과 상생, 감동과 풍요, 민관협력의 3유(有)에 부정부패 없는 군정, 선거를 의식하지 않는 군정, 예산낭비 없는 3무(無) 행정으로 설정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산업과 환경 등 7개 분야별(7種)로 지향점을 설정하고, J프로젝트와 화원산단 조성 등 현재 추진중인 7대 중점사업(7重)의 차질 없는 추진, 바이오·태양광·첨단산업 등 7대 성장동력(7新)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표시를 하고 있다.

이석재(61) 후보는 3선 도의원으로 전남도의회 부의장을 지낸 정치인 출신. 주요 공약은 사회복지 향상과 문화관광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고령사회에 맞는 실버타운 조성 등 여성복지 향상 실현계획 수립, 이주여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등이 그 것이다. 아울러 권역별 특성을 살려 명랑대첩 승진지 관광명소화와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조성 등을 추진하고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인촌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후보 중 유일하게 공약집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이 후보는 “해남 토박이로 구석구석 속내를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참조 경영’으로 해남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만큼은 꼭 기회를 달라”며 표발을 누비고 있다.

/정후기자 who@kwangju.co.kr /해남=박정욱기자 jopark@kwangju.co.kr



BBK 수사결과 탄핵안이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12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을 거부하는 바람에 국회는 이날 반쪽만으로 개원했다. 한나라당 의석이 텅 비어있다. /연협뉴스

‘BBK 검사 탄핵 소추안’ 국회 보고

신당 14일 표결 처리... 한나라 원천봉쇄 땐 충돌 불가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를 표결 처리할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실효 저지할지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한나라당이 검찰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원천 봉쇄를 시도할 경우 양당 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양당 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진 등은 이날부터 비상 근무에 들어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탄핵안 보고는 이영희 국회부의장 주재로 진행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불참,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시점인 이날 오후 2시11분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처리되며, 시한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이날 제출된 탄핵안은 15일 오후까지 처리돼야 한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하면 통과된다.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금요일(14일) 오후 2시에 (탄핵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의원들에게 “모든 일을 전부 제쳐놓고 반드시 본회의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공보부대표는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태로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마당”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물리력으로 (탄핵안 보고를) 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에 저지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권위, ‘김경준 회유·협박설’ 조사 착수

“검찰이 BBK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경준 씨를 회유·협박했다”는 진정이 제기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변호인단과 인권위에 따르면 홍신식 변호사는 지난 9일 김씨를 대신해 “김

사들이 김씨를 강압적 분위기로 추궁하며 회유·협박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검사들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연협뉴스

사미컬체질식

66세부터 먹는 두끼 식사가 생깁니다

● 영양가 풍부
1인 1회 식사 2인분, 2인 1회 식사 1인분, 3인 1회 식사 1인분, 4인 1회 식사 1인분, 5인 1회 식사 1인분, 6인 1회 식사 1인분, 7인 1회 식사 1인분, 8인 1회 식사 1인분, 9인 1회 식사 1인분, 10인 1회 식사 1인분

● 맛있게 먹을 수 있음
맛있는 재료로 조리하여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하여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하여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 간편하게 먹을 수 있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하여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 맛있게 먹을 수 있음
맛있는 재료로 조리하여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하여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 간편하게 먹을 수 있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하여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 맛있게 먹을 수 있음
맛있는 재료로 조리하여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하여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 간편하게 먹을 수 있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하여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주)상현로하스
TEL. 1566-9194

日食 미도 확장개업

조용한 분위기, 편안한 고객님께 있어 감사드립니다.
개업15주년을 맞아 특별 미도가 새로운 풍채를,
특별있는 시선으로 고객님께 특별히 제공됩니다.
한번에 한끼가 아닌 두끼로 특별히 제공됩니다. 감사합니다.

● 미도 11종 세트 일회용 포장

● 숯불모임, 가족·집대모임은 일등미도 미도에서

● 단체 20석, 50석 가능 ● 통시주차 50대 가능

광주광역시 남구 학동 2가 111-1번길 11-1호 T. 02-234-0001, 228-0106